

살아선 산승이라 하여 산을 내려오지 않던 성철스님을 더욱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더기 한 벌, 몽당 색연필 한 자루, 안경.

비록 무소유, 무자취를 자랑으로 삼는 절집이지만, 한시대의 스승인 성철 큰스님이 남긴 것으로는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남기신 족적과 가르침은 가히 태산과 같으니, 스님을 두고 떠나없이 이 시대의 스승이라 일컬어도 당연스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서는 산승이라 하여 산을 내려오지 않던 스님을 생전의 생생한 모습과 가르침을 담은 비디오 "스님, 성철 큰 스님" 다섯 편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벗으셨지만 다시 우리 곁에 오신 큰스님의 가르침은 미망에 허덕이는 우리를 일깨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디오 "스님, 성철 큰스님"은 성철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백련문도회에서 직접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가까이서 스님을 모신 상좌들이 직접 리포터로 출연하여 일 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불교의 선맥을 바르게 세운 돈오돈수와 중도사상, 수행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컴퓨터 그래픽, 크로마키를 이용한 특수 화면 합성, 헬기 촬영과 미속 촬영 등으로 현대적 감각의 영상 구성과 함께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공개되지 않은 영상 자료와 취재중에 발견된 갖가지 문서와 사진 자료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그동안 스님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또 제자 문도들은 물론 당대의 비중 있는 고승들과 관계 학자들의 인터뷰를 채록, 객관적인 고증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비디오 "스님, 성철 큰스님"은 아래 장경각 미디어로 문의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비디오 다섯편과 나레이션북을 포함하여 100,000원이며, 이 수익금은 "성철 큰스님 사리탑 건립"과 "성철스님 기념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장경각 미디어/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호, 전화 733-4277, 팩스 733-4279
장경각 미디어에 전화로 신청하신 뒤, 국민은행 006-01-0646-101 예금주 '이영기'로 일십만 원(100,000원)을 입금하시면 즉시 동기우편으로 "스님, 성철 큰스님" 비디오를 발송해 드립니다